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

남광우*, 조건상**

해군사관학교 문화체육처*,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Students of Department in Physical Education

Kwang-Woo Nam*, Gun-Sang Cho**

Dept. of Culture and Sports,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Dept. of Athletic Training, Daelim Univ.**

요 약 이 연구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체육계열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총 221명의 표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절차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체육계열, 대학생, 전공만족,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식성숙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sports-related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221 students in sports-related university were investigated wit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PSS Statistics v21 and SPSS Amos v21. As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had static influence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showed that the major satisfaction gave static influence to the career sense maturity. Third, it showed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ffected the career sense maturity.

Key Words : Department in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ense Maturity

Received 31 October 2016, Revised 15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Gun-Sang Cho
(Dept. of Athletic Training, Daelim Univ)
Email: cgs3308@daelim.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대학이라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나름의 개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진로선택을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이들은 진로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취업상황은 어떠한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생의 취업률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67%로 실업률이 33%에 이른다[1]. 즉, 10명중 3명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회진출 기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에 성공했다라도 적성 불일치 등의 이유로 73.1%, 즉 취업에 성공했던 10명 중 3명 정도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다[1]. 통계치와 같이 비단 한국에서의 진로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현장과 사회진출의 연결시점에 비추어볼 때, 진로결정에 따른 취업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 따른 미스매칭의 사례가 고용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내외 사회경제 및 인구의 변화 등에 의한 여건의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난은 청년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경제나 산업구조 등의 고용사회구조의 체계를 악화하는 현상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2].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와 취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3]. 그러므로 이미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진로분야에 대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졸업을 유예하는 인원 증가와 전공학과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4]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도 진로교육에 대한 기대충족정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교육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5,6].

체육계열 대학생 또한 예외는 아니다. 체육과 학생들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타 전공과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점에서 진로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로인해 체육계열 대학생들 또한 진로

에 대해서 타전공학생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취업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체육학에서도 기존 연구를 통해 진로탐색이나 진로교육, 진로결정, 진로성숙도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7,8,9], 타 전공영역에 비해 진로에 대한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개인적 요소를 살펴보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미진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현장에서 진로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특성과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와 같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10,11]을 살펴보는 것은 취업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을 통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 진로선택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진로에 대한 행동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연구변인으로 설정한 전공만족변인은 전공공과를 학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즐거움과 같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서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12,13]. 이는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성숙도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15,16]으로서 현재 학습수행이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 부합되어 진로선택의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는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진로준비행동변인은 직업 목표에 대한 명확성과 자신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인지적 차원의 노력을 말한다[17,18].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한 직업정보나 자격증취득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 성숙도와 함께 상호연결 되는 개념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0,19]. 뿐만 아니라 최근 진로 자기효능감이나 취업스트레스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20,21] 취업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진로의식성숙변인은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22]으로 학년이 높고, 여성인 경우

진로의식성숙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3].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12,16,24], 진로자기효능감[25,26]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특히 진로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 진로의식성숙 변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상호 연결되는 변인으로 서로 긍정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와 같이 진로와 관련된 이 세 가지 개인적 요인들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인간의 관계들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인식과 신념에 의해서 결정 되는 바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진로지원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들을 통해 개인의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진로교육의 방향과 진로지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로,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로,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로,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체육계열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총 221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출강하고 있는 대학의 체육계열 학생들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설문지 및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배경변인 4문항, 전공만족 22문항, 진로준비행동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n=221)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69	76.5
	Female	52	23.5
Age	18-20	33	15.0
	21-23	120	54.3
	24-27	68	30.7
Grade	First	33	14.9
	Second	84	38.0
	Third	61	27.6
	Fourth	43	19.5
Major	Athletic Training	42	19.0
	Community Physical Education sport industry & Welfare	47	21.3
	Health Management	41	18.6
	Physics	6	2.7
	Life Physical Education	18	8.1
	Physical Education	52	23.5
	Taekwondo	10	4.5
		5	2.3

18문항, 진로의식성숙도 25문항 총 6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4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공만족은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28]에서 사용하였던 척도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전공만족 척도는 교과만족(6문항), 관계만족(5문항), 일반만족(5문항), 인식만족(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29]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이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6문항), 도구구비활동(5문항), 실천적 노력(7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의식성숙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선행연구[30]에서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진로의식성숙도 척도는 독립성(5문항), 태도성(5문항), 정보탐색 합리성(4문항), 계획성(8문항), 자기 이해성(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실시하였다. 첫째, 체육학 교수 1인과 박사 2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설문문항의 적합도와 내용타당성을 점검 받았다. 둘째, 구성된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

<Table 2> Component Content of Questionnaire Item

Variables	Categories	May question
Background Variable	Gender(1)	4
	Age(1)	
	Grade(1)	
	Major(1)	
Major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6)	22
	Relationship Satisfaction(5)	
	General Satisfaction(5)	
	Perception Satisfaction(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6)	18
	Instrument Fulfill Activities(5)	
	Practical Effort(7)	
Career Sense Maturity	Independence(5)	25
	Attitude(5)	
	Career Exploration & Rationality (4)	
	Career Planning(8)	
Total	Self-Appraisal(3)	69

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 직각회전기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 공통성은 .40이상, 초기 고유값은 .10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도구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공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의 척도는 선행연구와 같이 교과만족(.593-.776), 관계만족(.722-.826), 일반만족(.674-.737), 인식만족(.701-.828)의 4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이고 있다. 공통성은 .517-.833으로, 총 설명량은 72.85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chi^2(df)=179.712(113)/p=.001$, SRMR=.032, TLI=.967, CFI=.973, RMSEA=.052로 나타나 선행연구[3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도 기준(SRMR(<.05), TLI(>.90), CFI(>.90), RMSEA(<.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 계수도 .811에서 .902로 높게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이 확인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이 선행연구와 같은 3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수집활동(.798-.860), 도구구

<Table 3> EFA of Major Satisfaction

	Subject	Perception	General	Relationship	h^2
V1	.776	.151	.303	.082	.724
V2	.770	.241	.177	.255	.748
V3	.762	.212	.302	.062	.721
V5	.733	.248	.177	.293	.716
V6	.724	.227	.115	.368	.725
V4	.593	.139	.325	.201	.517
V18	.137	.828	.244	.138	.782
V20	.290	.745	.151	.262	.731
V21	.356	.743	.254	.094	.752
V19	.171	.701	.385	.158	.694
V15	.390	.331	.737	.171	.833
V14	.308	.288	.735	.223	.768
V13	.340	.275	.732	.200	.766
V12	.210	.327	.674	.335	.718
V8	.158	.172	.095	.826	.745
V10	.263	.168	.371	.723	.758
V9	.286	.153	.241	.722	.685
Eigenvalue	4.031	2.999	2.937	2.417	
Variance(%)	23.714	17.642	17.279	14.219	
Cumulative	23.714	41.356	58.634	72.853	

Kaiser-Meyer-Olkin=.944, $\chi^2=2489.670$, $df=136$, $p<.001$

<Table 4> Goodness of Fit Test

	χ^2	SRMR	TLI	CFI	RMSEA
Major Satisfaction	179.712	.032	.967	.973	.05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0.528	.047	.958	.972	.071
Career Sense Maturity	70.201	.028	.953	.968	.062

비활동(.861-.883), 실천적 노력(.666-.835)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성은 .596-.910으로, 총 설명량은 72.202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chi^2(df)=50.528(24)/p=.001$, SRMR=.047, TLI=.958, CFI=.972, RMSEA=.071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뢰도의 Cronbach's α 계수도 .725-.908로 높게 나와 내적일관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독립성(.744-.790), 태도성(.819-.834), 정보탐색 합리성(.561-.840), 계획성(.754-.790), 자기 이해성(.612-.660)의 5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높은 요인적재량이 나타났다. 또한 공통성은 .621-.849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Table 5> EFA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ractical	Intelligence	Instrument	h^2
r12	.835	.178	.136	.747
r16	.700	.161	.393	.666
r18	.696	.312	.293	.670
r7	.666	.274	.310	.615
r1	.075	.860	.190	.781
r3	.281	.709	.118	.596
r2	.304	.708	.147	.616
r4	.290	.216	.883	.910
r5	.347	.189	.861	.898
Eigenvalue	2.496	2.056	1.947	
Variance(%)	27.730	22.843	21.629	
Cumulative	27.730	50.573	72.202	

Kaiser-Meyer-Olkin=.847, $\chi^2=966,722$, $df=36$, $p<.001$

<Table 6> EFA of Career Sense Maturity

	Rationality	Independence	Planning	Attitude	Appraisal	h^2
m13	.840	.152	.133	-.069	.126	.766
m14	.801	.223	.182	-.002	.160	.750
m12	.621	.354	.286	-.045	.184	.628
m11	.561	.423	.268	.065	.261	.637
m3	.193	.790	.138	.058	.144	.704
m1	.303	.754	-.022	.222	.212	.754
m5	.198	.744	.281	-.012	.102	.682
m19	.132	.190	.799	-.052	.289	.778
m22	.365	.131	.754	.027	.016	.721
m8	.071	.247	.036	.834	-.292	.849
m7	-.142	-.052	-.062	.819	.371	.835
m23	.248	.362	.212	-.044	.660	.675
m24	.397	.204	.192	.098	.612	.621
Eigenvalue	2.609	2.412	1.597	1.446	1.335	
Variance	20.072	18.554	12.284	11.121	10.273	
Cumulative	20.072	38.626	50.910	62.031	72.303	

Kaiser-Meyer-Olkin=.886, $\chi^2=1106.460$, $df=78$, $p<.0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Major Satisfaction	Subject(1)	1										
	Relationship(2)	.598**	1									
	General(3)	.699**	.616**	1								
	Perception(4)	.604**	.508**	.7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lligence(5)	.468**	.583**	.538**	.423**	1						
	Instrument(6)	.331**	.347**	.265**	.231**	.467**	1					
	Practical(7)	.445**	.430**	.333**	.320**	.568**	.660**	1				
Career Sense Maturity	Independence(8)	.279**	.416**	.438**	.299**	.388**	.203**	.180**	1			
	Rationality(9)	.484**	.479**	.464**	.394**	.452**	.249**	.341**	.624**	1		
	Planning(10)	.429**	.435**	.465**	.345**	.525**	.436**	.537**	.437**	.577**	1	
	Appraisal(11)	.318**	.389**	.350**	.264**	.414**	.286**	.373**	.571**	.629**	.518**	1

** $p<.01$

72.303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의식성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초기과정에서 태도성의 8번 문항이 Heywood Case가 나타나 삭제되었으며, 이에 태도성의 하위요인이 삭제되었다. 이후 실시한 진로의식성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chi^2(df=70.201(38)/p=.001$, SRMR=.028, TLI=.953, CFI=.968, RMSEA=.062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 계수도 .600-.843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도 확인된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배경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분석하였다.

3. 결과

3.1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에 앞서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전공만족의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 노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둘째, 전공만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진로의식성숙도의 독립성, 정보탐색 합리성, 계획성, 자기 이해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진로의식성숙도의 모든 하위변인들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한편, 이 연구의 모든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180에서 .701 사이로 나타나 선행연구[32]에서 제시한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85보다 낮게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모수추정방식인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은 전공만족(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준비행동(독립성, 정보탐색 합리성, 계획성, 자기 이해성), 진로의식성숙도(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 노력)의 3개 척도 총 11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33,34]에 의하면, χ^2 의 p-value는 표본크기 및 측정변수 개수에 민감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 CFI, RMSEA와 더불어 SRMR의 지표를 적용한 적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이 $\chi^2(df)=12.291(40)/p=.001$, SRMR=.044, TLI=.912, CFI=.936, RMSEA=.096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Goodness of Fit Test

χ^2	df	p	SRMR	TLI	CFI	RMSEA
12.291	40	.001	.044	.912	.936	.096

<Table 9> The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StandardizedEstimate	S.E.	C.R(t)	sig	Result	Standardized Direct	Standardized Indirect	Standardized Total
1	Major Satisfac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17	.861	9.062	.001	adoption	.717		.717
2	Major Satisfaction → Career Sense Maturity	.351	.091	3.111	.002	adoption	.351	.303	.654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Sense Maturity	.422	.083	3.407	.001	adoption	.422		.422

3.3 가설검증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717, t 값은 9.062로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351, t 값은 3.111로 전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두 번째 가설도 채택되었다. 셋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422, t 값은 3.407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번째 가설도 채택되었다.

4. 논의

이 연구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며[35],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시절은 진로발달 단계에 있어서 선택과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들은 이 시기에 전공지식을 배우고 습

득하여 직업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36].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체육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과 대학생의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4]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7]와 경영학전공 대학생의 교수관계 및 사회인식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6]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목표로 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속한 학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8]. 결국 이 연구는 체육계열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학과 안에서의 교육내용, 교수 및 교우 관계, 적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할 때 자신이 목표로 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을 성실히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 남녀 대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직업관련 조사[39]에 의하면 전체 대상 가운데 65.8%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이 고민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40]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체육교육학과와 체육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범대 체육교육과 32.4%, 체육계열학과 40.5%로 낮은 수준의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체육계열의 대학교육이 실제적 직업세계와 연계성이 부족함이 문제 제기되고 있다[41]. 이에 각 대학의 체육계열학과는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및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및 교과목 등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은 미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진로에 대한 철저한 준비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교과 및 수업, 전공인식, 관계의 전공만족이 독립성, 목적성, 결정성, 확신성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와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성, 자기자신이해, 의사결정성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6]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전공학과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운다고 느끼며 학과를 졸업한다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의식성숙도를 높게 인식하게 된다는 연구결과[42]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이 전공학과 내에서 교육과정과 인관관계,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만족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독자적이고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연구[16]는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식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토대로 한 전공만족도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과 더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교육프로그램의 제공도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전공과 관련된 진로체험과 더불어 전문 상담 등과 같은 다각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더불어 전공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대학생의 성숙한 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극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학생이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3]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 행위차원을 말하는 것으로써[44],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게 되는 행동 및 진로를 결정한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게 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17].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45]. 즉 이 연구결과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등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자신의 진로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46],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19,47]은 이 연구와 달리 진로의식성숙을 선행변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는 일정 시기에 갑자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 및 체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48]으로 일시적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47],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의식성숙을 선행변인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과, 관계, 일반, 인식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계획하였으며, 이들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선순환적 과정을 통해 개인의 진로의식성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측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즉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의식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의 초기 기대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전공 및 진로교육의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체육계열 대학생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관심분야와 흥미 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진로 정보 등의 제공이 요구된다[43]. 또한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진로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소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 연구결과와 같이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체육계열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총 221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식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그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식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도 진로의식성숙에 도움을 주는 변인임이 확인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전공 및 진로교육의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 이 연구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과정 속에 이들 선인변인들 고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연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연구의 필요함을 함의한다.

REFERENCES

- [1] DOI: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167351004.HTML>.
- [2] Jee-Sook, Balk, "Reasons for Career Indecisiveness,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aptation Using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4, No. 4, pp. 1-10, 2006.
- [3] Felsman, D. E., Blustein, D. L.,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4, pp. 279-295, 1999.
- [4] Dong-Soo Ryu, Moon-Soo Park, Jin-Kook Kim, "The Effect of Educati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in the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on Employment Barri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orts Related Majoring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4, pp. 293-305, 2014.
- [5] Tat, H. H., Rasli, A., Chye, L. T., "Stud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 discriminant analysis approach."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in Business*, Vol. 3, No. 2, pp. 1401-1407, 2011.
- [6] Thomas, E. H., & Galambos, N., "What satisfies students? Mining student-opinion data with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analysi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45, No 3, pp. 251-269, 2004.
- [7] Dae-Kwang Kim, Hyang-Hee Hwang, "The Knowledge of Career Education for Physical Education Major University Students." *Korea Sport Research*, Vol. 17, No. 1, pp. 155-164, 2006.
- [8] Mi-Ran Choi, "The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allied physical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9, NO. 2, pp. 289-300, 2006.
- [9] Chang-Mo Koo, "The relation between self identity and vocational maturity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4, No. 1, pp. 57-66, 2005.
- [10] Yeon-Hee S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117-134, 2011.
- [11] Seung-Hee Kang,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3, pp. 291-307, 2010.
- [12] Hee-Young Jeong, Ok-Lyun Park, "Difference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Sense of Value Group Based on Cluster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15, No. 2, pp. 630-638, 2009.
- [13]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14] Min-Jeong Chae, Hyo-Ju Jung,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3, pp. 213-222, 2016.
- [15] Mi-Soo Jo, Jung-Sik Roh, "The Influences of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31, No. 1, pp. 53-66, 2014.
- [16] Yae-Jung Han, Jong-Ho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9, No. 2, pp. 76-92, 2013.
- [17] Bong-Hw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7.
- [18] Skorikov, V.,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0, No. 1, pp. 8-24, 2007.
- [19] Yun-Kyung Au,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kill on a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4, pp. 1029-1046, 2010.
- [20] Myung-Ok Kim, Young-Soo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r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1, pp.

- 69-90, 2012.
- [21] Chemers, M. M., Hu, L., Garcia, B. F.,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3, No. 1, pp. 55-64, 2001.
- [22] Crites, J. O.,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in adolescence: Attitude Test of the 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 *Psychological Monograph*, Vol.79, pp. 257-264, 1978
- [23] Achebe, C.,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0, pp.153-161, 1982.
- [24] Myong-Hee Yang, Myong-Ji Park, Hee-Joung Kim,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137-156, 2010.
- [25] Gyeong-Pil Ko, Mi-Young Sim,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19-38, 2014.
- [26] Kornspan, A. S., Etzel, E. R.,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o career maturity of junior college student athle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2, No. 2, pp. 122-132, 2001.
- [27] Mee-Kyoung Hwang, Young-Joo Moon, "The Effects of Career and Work Competen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 19, No. 4, pp.1-25, 2012.
- [28] Sun-Young Lee, "Research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2009.
- [29] Hyun-Hee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16.
- [30] Kwang-Woo Nam, Hyo-Sung Lim, Young-Jun.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of coach and sports behavior: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Vol. 18, No. 1, pp. 67-79, 2016.
- [31] Byung-Ryul Ba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 -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nam. 2013.
- [3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1.
- [33] Joo-Han Kim, Min-Gyu Kim, Se-Hee Hong. "A writ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Communication books.
- [34] Gun-Sang Cho, Young-Jun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ert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477-487, 2016.
- [35] Han-Byuong Gwak, Wang-Sik Min, Young-Hyun Kim, Young-Mo Yang, Woo-Jin KIM, "Causal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major and martial arts education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ecurity Service Major and Martial Arts Major-."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36, pp. 57-92, 2013.
- [36] Ju-Seong Lee, "The Effects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30, No. 2, pp. 1-31, 2016.

- [37] Yun-Jeong Song, Gyu-Pan Ch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4, pp. 355-374, 2015.
- [38] Hye-Suk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39] DOI: <http://www.aneews.com/detail.php?number=652144&thread=09r02>.
- [4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School violence eradicate Comprehensive measures Implementation plan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 [41] Jeong-Jun Park, Ae-Ryung Hong, "Direction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through Career Perception of Sports-related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23, No. 3, pp. 65-88, 2016.
- [42] Hee-Young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2010.
- [43] Young-Ju Joo, A-Ran Kang, Se-Bin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teacher's support, Satisfaction on career educ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4, pp. 25-47, 2013.
- [44] Bong-Whan Kim,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4, pp. 93-111, 2010.
- [45] Min-Joo Chung,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12, No. 1, pp. 81-104. 2014.
- [46] Hae-Gyoung Lee, Hye-Won Kim, Eun-A Kim,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5, No. 2, pp. 443-466, 2013.
- [47] Ji-Hye Le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3, pp. 133-154, 2013.
- [48] Myeong-Sil Cho, Kyoung-Sook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085-1099, 2007

남 광 우(Nam, Kwang Woo)



- 2003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6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6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7년 1월 ~ 현재 : 해군사관학교 문화체육처 교수

- 관심분야 : 무도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코칭
- E-Mail : nom187@naver.com

조 건 상(Cho, Gun Sang)



- 199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3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8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융합
- E-Mail : cgs3308@daelim.ac.kr